

수량 표현과 문화의 이해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

김 만 수
(대전대)

1. 문제 의식

『전쟁론』에 자주 나오는 수량표현 중에 본 논문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길이, 거리, 간격 그리고 넓이, 면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¹⁾ 그리고 이는 주로 프로이센 마일과 제곱마일로 표현된다.²⁾

『전쟁론』 독자 중에 이 마일을 모두 (현재 우리들이 쓰고 있는) 킬로미터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준 사람이 있었다. 『전쟁론』 번역서의 독자는 오늘의

-
- 1) 병사, 마차, 대포 등을 세는 몇 명, 몇 대, 몇 문 등의 수량표현은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다루지 않는다.
 - 2) Meile/Meilen(단수/복수), Quadratmeile/Quadratmeilen으로 나타난다. ‘마일’의 외래어 표기법, 즉 음성번역 단계에 나타나는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번역과 관련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김정우(67~93) 참조.

한국 사람이니, 200여 년 전의 프로이센 수량표현도 당연히 200년 후 오늘의 한국 수량표현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적이 이 논문을 쓸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런데 번역이나 번역학에서³⁾ 중요한 문제는 원전텍스트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전달하는데 있다. 수량표현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지 않으며,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⁴⁾ 일례로 번역(학)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번역학연구』에도 지난 10년 동안 수량표현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진실로 · 곽은주의 논문 하나뿐이었다.

‘도량단위’는 사실 모든 언어에 발달되어 있고 번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하다. 다만 언어마다 도량형이 다르므로 영어의 ‘pound’를 ‘파운드’로 음차하여 원어 도량형 단위를 그대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 독자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근’이나 ‘그램’ 등으로 옮길지의 문제는 생각해볼 만하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규격화, 표준화 경향에 맞춰 ‘그램’ 단위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선택의 폭이 좁은 만큼 번역자의 고민도 덜하리라 생각된다(진실로 · 곽은주 188~189).

『전쟁론』 독자와 진실로 · 곽은주는 도량단위 번역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며, 미터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⁵⁾ 이 견해를 검토하여 수량표현 번역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전쟁론』 독어판과 번역본 중에 이 논문에 쓸 텍스트를 선정한다. 그리고 『전쟁론』 원전에 나오는 수량표현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전쟁론』의 번역에 나타나는 수량표현 문제를 현상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방식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 즉 현상에서 본질로

3) 이 논문이 ‘번역학’을 다루지는 않는다. 번역학의 이론적인 논의에 관해서는 베르너 콜러 참조. 번역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마리안느 르드레르 참조.

4) 번역학자보다는 번역현장의 전문번역자들이 수량표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근희 참조.

5) ‘최근’이 아니라면 또는 최근을 매우 넓게 해석하면, 진실로 · 곽은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는지 궁금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도량형 단위의 번역 문제에 관해 진실로 · 곽은주에게 던지는 질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려가는’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수량표현의 번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살펴본다. 이 연구방법은 그대로 이 논문의 서술방법이자 차례를 이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첫째로 수치를 정확하게 환산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화의 도량단위나 수량표현을 우리 단위로 옮기는 일은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로 그럴 경우 다른 문화를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이는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마일을 킬로미터로 옮기고 파운드를 그램으로 옮기는 일은 『전쟁론』과 같은 동서고금의 고전을 번역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⁶⁾

2. 『전쟁론』 텍스트

『전쟁론』은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의 사망(1831년) 후에 출간되었다. 총 세 권으로 이루어진 『전쟁론』은 클라우제비츠의 부인의 노력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베를린에서 1년에 한 권씩 간행되었다.

(1) *Vom Kriege*, 1권, Ferdinand Dümmler, 1832

(2) *Vom Kriege*, 2권, Ferdinand Dümmler, 1833

(3) *Vom Kriege*, 3권, Ferdinand Dümmler, 1834

일반인들은 이 원전을 볼 수 없으므로, 현재에는 원전⁷⁾ 세 권을 한 권으로 합쳐 출간한 아래의 책을 읽게 된다.

(4) *Vom Kriege-hinterlassenes Werk; ungekürzter Text*, Ullstein, 2002

6) 이 논문의 대상은 『전쟁론』처럼 주로 동서고금의 고전으로 제한된다. 신문, 방송, 문학작품, 실용서적, 아동서적 등과 같은 글에 나오는 수량표현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그런 글의 수량표현을 이 논문의 주장처럼 번역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번역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른 문화의 도량형 단위를 모두 미터법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정효(182~185) 참조. 이희재(218~220과 255~258)도 안정효와 같은 주장을 펼친다.

7) ‘원전’이란 개념도 번역학계에서는 성찰의 대상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영환(16) 참조.

『전쟁론』 번역서에서는 먼저 영어번역과 일어번역을 살펴본다. 두 번역이 우리말 번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논문의 논의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5) *On War*, Michael Howard와 Peter Paret 옮김, Alfred Knopf, 1993

(6) 『戰爭論』, 篠田英雄 옮김, 岩波書店, 1968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서는 모두 열다섯 종이다. 『전쟁론』 번역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번역서를 발행연도 순으로, 같은 연도의 경우에는 역사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7) 1972, 『전쟁론』, 권영길 옮김, 하서출판사

(8) 1972, 『전쟁론』, 이종학 옮김, 대양서적

(9) 1974, 『전쟁론』, 이종학 옮김, 일조각

(10) 1977, 『전쟁론』, 김홍철 옮김, 삼성출판사

(11) 1977, 『전쟁론』, 허문열 옮김, 동서문화사

(12) 1982, 『전쟁론』, 권영길 옮김, 양우당

(13) 1982, 『전쟁론』, 허문열 옮김, 범한출판사

(14) 1983, 『전쟁론』, 허문열 옮김, 학원출판공사

(15) 1990, 『전쟁론』, 맹은빈 옮김, 일신서적

(16) 1991, 『전쟁론』, 강창구 옮김, 병학사

(17) 1993, 『전쟁론』, 옮긴이 없음, 합동참모본부

(18) 1998, 『전쟁론』, 류제승 옮김, 책세상

(19) 2008, 『전쟁론』, 정토웅 옮김, 지만지

(20) 2009, 『전쟁론』, 허문순 옮김, 동서문화사⁸⁾

(21) 2006~2009, 『전쟁론』, 김만수 옮김, 갈무리

우리말 번역에서는 완역과 『전쟁론』 번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초역(抄譯)을 텍스트로 선정한다. 복사판이나 해적판은 제외하며, 중복 번역도 배제한다. 번역자를 밝히지 않은 번역도 제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전쟁론』의 우리말 번역에서 여섯 종을 선정한다.

권영길의 번역이 두 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권이다. 즉 (12)는 (7)의 복사판이고, (17)은 (7)의 해적판이다. (17)에는 번역자의 이름이 없다. (12)와 (17)

8) 허문순은 허문열과 동일 인물이다.

은 (7)과 쪽수도 똑같다. 허문열의 번역이 세 권 보이는데, (11), (13), (14)다. 이 세 책의 쪽수도 똑같다. 『전쟁론』 번역서를 살펴볼 때는 복사판이나 해적판에 해당하는 (12), (13), (14), (17)을 제외해야 한다.

분량상 방대하고 내용상 난해한 『전쟁론』 번역에는 초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19)는 121쪽이지만, 해설과 지은이에 대한 설명을 빼면 본문은 104쪽에 지나지 않는다. 역자는 『전쟁론』의 핵심 부분을 번역하였다고 밝혔지만, 그 때문에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되는 수량표현이 (19)에는 없다. (9)도 초역이고 분량 또한 매우 적은 편이다. 이 번역에는 수량표현이 몇 군데 보이지만, 같은 번역자의 (8)을 텍스트로 삼으면 될 것이다. (15)의 번역 분량도 매우 적다. (15)는 어느 책을 텍스트로 삼아 번역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역자 소개도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번역서라고 할 수 있다. (11)은 매우 ‘문학적인’ 번역인데, 초역인데도 수량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10)도 초역이고 수량표현이 없다. 결과적으로 초역인 데다 매우 적은 분량 때문에 (9), (10), (11), (15), (19)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쟁론』의 우리말 텍스트로 선정된 책은 (7), (8), (16), (18), (20), (21) 여섯 종이다. 『전쟁론』의 독어판, 영어번역과 일어번역, 우리말 번역 여섯 종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리한다.

- ① 2002, *Vom Kriege*, Ullstein
- ② 1993, *On War*, Michael Howard와 Peter Paret 옮김, Alfred Knopf⁹⁾
- ③ 1968, 『戰爭論』, 篠田英雄 옮김, 岩波書店
- ④ 1972, 『전쟁론』, 권영길 옮김, 하서출판사
- ⑤ 1972, 『전쟁론』, 이종학 옮김, 대양서적
- ⑥ 1991, 『전쟁론』, 강창구 옮김, 병학사
- ⑦ 1998, 『전쟁론』, 류제승 옮김, 책세상
- ⑧ 2009, 『전쟁론』, 허문순 옮김, 동서문화사
- ⑨ 2006~2009, 『전쟁론』, 김만수 옮김, 갈무리¹⁰⁾

9) Howard와 Paret의 영어번역은 1976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1993년 판을 이용한다.

10) ①~⑨의 번호를 각 책의 고유 번호로 삼고 이제부터 각 책을 이 번호로 표시한다.

3. 『전쟁론』의 수량표현

『전쟁론』에 마일과 제곱마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어느 편과 장에 얼마나 나오는지, ①을 통해 확인한다.

	편과 장	마일 표현	쪽수
1	5편 6장	in der Entfernung einer Meile	299
2	"	meilen- und märschweit	299
3	"	ein See von einigen Meilen Umfang	299
4	"	auf einige Meilen rechts oder links	300
5	"	mehrere Meilen weit	300
6	"	1 bis 2 Meilen von sich entfernt	302
7	"	3 bis 4 Meilen entfernt	302
8	5편 7장	zwischen 1 und 3 Meilen Entfernung	308
9	5편 8장	noch nicht 2 Meilen	313
10	"	von 3 bis 4 Meilen	313
11	"	nur eine Meile weit	313
12	"	bei 4 Meilen	313
13	"	nur eine Meile weit vom Heere	313
14	5편 10장	nicht über eine Viertelmeile	318
15	"	auf eine Viertelmeile	318
16	"	auf einige Meilen Entfernung	319
17	"	einen Marsch von 3 Meilen	320
18	5편 11장	ein Marsch von 3 Meilen	323
19	"	auf 2 Meilen	323
20	"	von 3 Meilen	324
21	"	5, höchstens 6 Meilen, auf längere Dauer 4	324
22	"	Ein Marsch von 5 Meilen	324
23	"	Ist der Marsch 6 Meilen	324
24	"	auf etwa 50 Meilen	325
25	"	45 Meilen	325
26	"	täglich 4 1/2 Meilen	325
27	"	nur etwa 30 Meilen in 10 Tagen	326
28	5편 12장	dann meilenweit	327
29	"	von 100 Meilen und darüber	328
30	"	von etwa 70 Meilen	328
31	"	nur etwa 120 Meilen	329
32	5편 13장	drei Meilen weit	334
33	"	von etwa 30 Quadratmeilen	334

34	"	nicht mehr als eine Meile	334
35	"	nur einen Raum von 4 Quadratmeilen	334
36	"	bei der Entfernung einer Meile	334
37	"	nur 2 Meilen	335
38	"	etwa 8 Meilen	335
39	"	dann 6 1/2 Meilen	335
40	5편 14장	auf die Quadratmeile	339
41	"	etwa 4 Quadratmeilen Raum	340
42	"	von 2 Meilen	340
43	"	nur eine Breite von 6 Meilen	340
44	"	auf die Quadratmeile	340
45	"	von 2 auf 3 Meilen	341
46	"	statt vier neun Quadratmeilen Oberfläche	341
47	"	in der Runde von einer Meile	342
48	"	von einer 3 bis 4 Quadratmeilen	342
49	"	ein paar Meilen	343
50	"	nur 4 Quadratmeilen	343
51	"	um mehr als 2 Meilen	344
52	"	130 Meilen weit	345
53	"	400 Quadratmeilen	348
54	"	400 Quadratmeilen	348
55	6편 4장	einer halben Meile	383
56	"	gar von 20 bis 30 Meilen	383
57	6편 8장	von wenigen Meilen	400
58	6편 10장	Ein See von mehreren Meilen Länge	420
59	"	eine 30 Meilen lange Verbindungslinie	421
60	"	auf 3 bis 4 Meilen Breite	423
61	"	eine 15 bis 20 Meilen lange Quartierlinie	423
62	"	auf 3 bis 4 Meilen Breite	423
63	"	6 bis 8 Meilen	424
64	"	auf einige Meilen	426
65	6편 11장	10~12 Meilen entfernt	430
66	6편 13장	15 Meilen langen	438
67	6편 15장	von etwa zehn Meilen und darüber	449
68	6편 17장	6 bis 8 Meilen	468
69	"	bis zu 20 und 30 Meilen	468
70	6편 18장	4 Meilen	472
71	"	alle 8 Meilen	472
72	"	auf eine Strecke von 24 Meilen	472
73	"	von 24 Meilen Länge	476

74	6편 20장	von einer Viertel- oder halben Meile	490
75	"	von etwa 8 Meilen	492
76	6편 24장	einer 40 oder 50 Meilen	506
77	"	80 Meilen	515
78	"	nicht über 30 Meilen	515
79	6편 25장	90 Meilen von der Grenze	520
80	"	von 100 Meilen	520
81	"	nur nach 100 Meilen	520
82	"	von 1, 2, höchstens 3 Meilen	521
83	"	auf 50 Meilen	523
84	6편 27장	auf 50 oder 100 Meilen	539
85	6편 30장	eine gewisse Anzahl Meilen	567
86	7편 10장	mehrere Meilen Land	604
87	7편 13장	von 3 Meilen	611
88	7편 17장	nicht über einige Meilen	625
89	7편 18장	eine halbe Meile	625
90	"	mehrere Meilen	625
91	"	Zehn Meilen von seiner Hauptarmee	626
92	7편 19장	von einigen Meilen Raum	631
93	8편 8장	einen hundert Meilen langen	697
94	8편 9장	nur 30 Meilen entfernt	722
95	"	30 und 40 Meilen	725

①에는 ‘마일’이 모두 95회 나온다. 이는 명시적으로 마일이 표현된 경우다. 숫자만 나오고 마일이 생략된 부분은 신지 않았다. 그에 반해 마일이 나오는 경우에는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표에 반영했다. 수치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4분의 1마일도 나오고 2분의 1마일도 보인다. 1, 2마일도 나오고 10, 20마일, 100마일, 400마일도 보인다. 수치를 정확하게 표현한 곳도 있고 대충 제시한 곳도 있다.

『전쟁론』은 총 여덟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편 전쟁의 본질, 2편 전쟁이론, 3편 전략, 4편 전투에는 마일이 나오지 않는다. 5편 전투력에서 54회, 6편 방어에서 31회 마일을 볼 수 있다. 7편 공격에는 7회, 8편 전쟁계획에는 3회 마일이 나온다. 5편과 6편의 마일이 『전쟁론』 전체의 약 90퍼센트에 이른다.

내용상으로 길이와 넓이를 많이 다루는 곳에 마일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부대의 이동이나 병사들의 숙소와 관련되는 문제는 길이나 넓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5편의 행군과 관련된 세 장(10~12장)에 마일이 18회 나오고, 식량 조달에 관한 장(14장)에 마일이 15회 나온다. 행군과 식량 조달에서 길이나 넓이 등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나오는 마일만 33회인데, 이는 5편의 약 61퍼센트이며 『전쟁론』 전체의 약 35퍼센트에 이른다.

4. 수량표현 번역의 현상적 차원

『전쟁론』 원전의 마일은 프로이센 마일이다. 이는 걸음걸이로 계산하는 마일인데, 1마일은 1만 걸음으로서 대략 7500미터(정확히는 7532.484미터)다. ②는 프로이센 마일을 대부분 영미식 마일로 환산했다. 1959년 7월 1일까지 쓰인 대영제국의 역사적인 법정 마일에서 1마일은 1609.3426미터이고, 현재 미국의 법정 1마일은 1760야드로서 1609.344미터다. 양쪽 마일의 차이는 1마일 당 1.4밀리미터로 극히 미미하다. 1마일을 1609.34미터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프로이센 마일이 영미식 마일보다 대략 다섯 배(정확히 4.68배) 길다. 그래서 ②는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하였고, ①의 1마일을 5마일로 환산하였다. 프로이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단위이름이 마일로 똑같으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②는 이러한 환산에 대해 설명을 달지 않았다.

마일에서 영어번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말 번역서로는 ⑤와 ⑦을 들 수 있다. ⑤는 영미식 마일을 썼고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초역이어서 마일이 네 번밖에 나오지 않는 ⑦에는 프로이센 마일과 영미식 마일이 섞여 있다. ⑤와 ⑦ 모두 프로이센 마일을 썼는지 영미식 마일을 썼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다.

③은 프로이센 마일과 수치를 그대로 썼다. 또한 프로이센 마일에 자세한 해설을 달았다. ③의 중역인 ④, ⑥, ⑧은 ③의 예를 따랐다. 이와 달리 ⑨는 독어 원전, 영어번역, 일어번역, 우리말 번역을 모두 참고하여 『전쟁론』을 번역했다고 ‘옮긴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¹¹⁾

11) 그래서인지 ⑨의 2권 66쪽에는 프로이센 마일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일(Meile, mile)은 프로이센의 마일, 즉 걸음걸이로 계산하는 마일이다. 1마일은 1만보(一萬步)로서 대략 7,500미터(정확히 7,532.484미터)다. 『전쟁

『전쟁론』의 수량표현은 번역서에도 그 단위이름을 음차하여 그대로 적어야 한다. 또한 같은 마일 이름을 쓴다고 해도 수치를 환산해서는 안 되며 원전의 수치를 그대로 써야 한다. 현상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길이나 넓이를 표현하는데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난다. 이제부터 그러한 혼란을 보도록 한다.

텍스트 ①	텍스트 ②
(a) einer Meile(299)	a mile(356)
(b) einige Meilen(299)	a few miles(356)
(c) 1 bis 2 Meilen(302)	five to ten miles(358)
(d) 3 bis 4 Meilen(302)	fifteen to twenty miles(358) ¹²⁾

(c)와 (d)를 보면, 영어번역이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하여 수치를 환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대부분에 이런 환산이 보인다. 그런데 (a)에서는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하지 않았다. 몇 마일 또는 2~3마일 정도라고 할 수 있는 (b)는 독어를 그대로 옮겼다. 프로이센의 몇 (또는 2~3) 마일은 영미식으로 환산하면 10~15마일에 해당한다. 이 길이를 영어로 ‘a few miles’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즉 (a)는 잘못된 수치이며 (b)는 잘못된 번역이다.

‘a few miles’는 ②에 여러 번 (377, 400, 458, 670, 677쪽) 나온다. ‘a few miles’ 말고 ‘several miles’도 몇 번(475, 479, 647쪽) 보이며, ‘a certain number of miles’도 한 번(613쪽) 보인다. 프로이센의 2~3마일은 영미식으로 10~15마일이다.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하는 영어번역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이 표현들은 모두 다섯 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잘못된 번역이다.

텍스트 ①	텍스트 ②
(e) einer Viertel- oder halben Meile(490)	a mile or two(540)
(f) einer halben Meile(383)	a few miles(441), two miles(671)

론』에 나오는 마일은 전부 프로이센 마일이다. 영국식 마일은 1609.3미터이니, 프로이센 마일이 대략 다섯 배(정확히 4.68배) 길다.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해 프로이센 마일을 모두 영국식 마일로 환산한 번역 책이 있다.”

12) 괄호 안의 숫자는 모두 해당 텍스트의 쪽수를 나타낸다. 아래에서도 똑같다.

(e)에서 프로이센의 1/4마일과 1/2마일을 ②는 1마일과 2마일로 환산했다. 이런 환산은 ②의 376쪽에도 보이는데, 부정확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환산이다. (f)에는 반마일을 ‘몇 마일’ 또는 2마일로 번역했는데, 수치상으로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의 (b)는 명백히 잘못된 번역이다.

5를 엄밀히 곱하지 않고 대충 곱한 경우도 있다. ①의 325쪽에 있는 45마일(45 Meilen)과 4 1/2 마일(täglich 4 1/2 Meilen)을 ②의 384쪽에서는 220마일(220 miles)과 22마일(22 miles a day)로 옮겼다. 즉 환산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길이의 경우에는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하면 영미식 마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이의 경우에는 이 환산이 혼란스러워진다.

텍스트 ①	텍스트 ②
(g) 30 Quadratmeilen(334)	700 square miles(391)
(h) 4 Quadratmeilen(334)	80 square miles(392)
(i) die Quadratmeile(339)	25 square miles(397)
(j) 4 Quadratmeilen(340)	100 square miles(397)
(k) statt vier neun Quadratmeilen(341)	from 100 to 200 square miles(398)
(l) 3 bis 4 Quadratmeilen(342)	15 to 20 square miles(399)

(h), (j), (l)에 보이는 프로이센 4제곱마일이 영미식 마일로는 80제곱마일, 100제곱마일, 20제곱마일로 환산되어 있다. 영어번역이 프로이센 1마일에 5를 곱하였으니, (i)처럼 1제곱마일이 25제곱마일로 환산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동의하기 어렵다. 즉 ②에서 환산의 임의성이나 비밀관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예를 통해 ②에 나타나는 수치의 혼란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쟁터는 많은 병사들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곳이다. 목표지점에 이르는 거리를 잘못 계산하는 치명적인 잘못으로 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전쟁론』과 같은 책은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우리말 번역서의 수량표현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량표현에서 영어번역의 영향을 받은 번역서로는 먼저 ⑤를 들 수 있다.

텍스트 ①	텍스트 ⑤
(㉠) einer Meile(299)	一마일(296)
(㉡) einige Meilen(300)	二, 三마일(296)
(㉢) 1 bis 2 Meilen(302)	五 내지 一〇마일의(298)
(㉣) 3 bis 4 Meilen(302)	一五 내지 二〇마일의(298)
(㉤) eine Viertelmeile(318)	一마일 정도(310)
(㉥) 45 Meilen(325)	二二五마일의(317)
(㉦) 4 1/2 Meilen(325)	二二마일에(317)
(㉧) mehreren Meilen(420)	수 마일의(384)

⑤는 내용상으로는 일어번역의 중역이지만, 마일에서는 영어번역의 예를 따랐다. 먼저 (㉢)과 (㉣)에서 보듯이, 마일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했다. (㉢)에서 보듯이, 프로이센의 1/4 마일을 영미식의 1마일로 환산한 것도 ②의 예와 같다. (㉥)의 프로이센 45마일을 영미식의 225마일로 환산한 것은 ②보다 정확한 환산이지만, (㉦)에서는 프로이센의 4 1/2 마일을 ②처럼 22마일로 환산했다. 그리고 (㉠)에서는 프로이센의 1마일을 ②처럼 1마일로 옮겼다. 또한 (㉡)과 (㉧)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이센의 몇 마일 또는 2~3마일도 아무런 설명 없이 2~3마일이나 수마일로 번역했다. 한마디로 프로이센 마일에 5를 곱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마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마일 표현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⑤는 ②와 같다. 이것으로 ⑤의 ‘혼란’은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텍스트 ①	텍스트 ⑦
(㉨) Meilenweit(327)	수마일 거리를(245)
(㉩) von wenigen Meilen(400)	수마일에 불과한(281)
(㉪) einen hundert Meilen langen(697)	수백 마일에 달하는(428)
(㉫) nur 30 Meilen(722)	불과 30마일(461)

⑦에 보이는 마일 표현은 이것이 전부다. 초역이라 마일 표현이 네 개뿐이다. ⑦은 영어번역의 영향을 받았든 그렇지 않은든 수량표현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수치를 그대로 쓰고 마일도 그냥 마일이라고 표현했다. (㉨)과 (㉩)에서 보듯이 몇 마일은 그냥 수마일로 옮겼고, (㉪)에서 보듯이 프로이센의 백마일은 수백 마일로 옮겼다. (㉫)에 나타나듯이,

프로이센의 30마일도 그냥 30마일이라고 옮겼다.

마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⑦은 ⑤와 공통된다. 현재 쓰고 있는 마일이든 고대에 쓰였던 마일이든, 세계적으로 마일은 약 80종류나 된다.¹³⁾ 이 마일들은 다른 길이를 표현한다. 우리말 번역서에 마일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미친 영어와 미국의 영향으로 볼 때 독자들은 그것을 곧바로 영미식 마일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수치로는 프로이센 수치를 쓰고 단위이름은 영미식을 쓴다면 혼동이 생길 것이다. (ㄷ)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이센의 30마일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225킬로미터인데,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30마일’이라고 고만 쓰면 우리 독자들은 약 48킬로미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¹⁴⁾ 수치와 수량 표현에서도 정확한 번역이 요구된다. ‘전쟁’에 관한 책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치를 원전 그대로 쓸 것이면 프로이센 마일이라고 밝히든지, 마일 종류를 밝히지 않을 것이면 수치를 영미식으로 정확히 환산해야 할 것이다.

이제 ④, ⑥, ⑧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세 권의 우리말 번역은 일어번역의 중역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마일에서도 일어번역을 그대로 썼다. 마일과 관련된다는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本書で使用しているマイルは、すべてプロイセン・マイル即ち歩行マイル(一マイルは一万歩)で七五三二・四八四メートルに相當する.” (③ 중권: 154)
- (나) “1독일마일은 7506미터” (④ 상권: 370)
- (다) “1독일마일은 7342미터” (⑥ 상권: 382)
“이 책에서 사용한 1마일은 프로이센 마일, 즉 1만歩인 歩行마일로 7342.484미터이다.” (⑥ 상권: 383)
- (ㄷ)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은 모두 프로이센 마일, 즉 보행 마일(1마일은 1만 보)로 7532.484m에 해당된다.” (⑧: 398)

(ㄷ)와 (ㄷ)에서 보듯이, ⑥과 ⑧은 해설도 일어번역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다. (나)와 (다)를 보면 ④와 ⑥의 마일 환산이 정확하지 않다. ⑥은 해설에서는 프로이센 마일이라고 하더니 본문에는 독일마일이라고 쓰고 있다. ④도 독일마일이

13) <http://de.wikipedia.org/wiki/Meile> 참조. 그리고 지명숙·왈라벤(7) 참조.

14) 30이라는 딱 떨어지는 숫자와 225처럼 그렇지 않은 숫자도 우리 눈에 다르게 인식된다. 시각적인 측면과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원전의 수치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쓰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마일’은 잘못된 표현이다. 독일동맹은 여러 왕국, 공국, 제후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871년 이전에 독일에 통일국가는 없었다. 독일마일이 있었지만 이는 통일국가로서 독일이 쓴 것이 아니라 독일동맹에 속한 나라 일부, 함부르크, 덴마크 일부에서 쓰던 마일이다. ‘프로이센 마일’이 정확한 표현이다.

끝으로 수량표현과 관련하여 『전쟁론』 2권 6편 24장에 나오는 ‘112마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독어 원전, 영어번역, 일어번역, 우리말 번역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①~⑨는 물론 1833년 판 독어 원전도 살펴본다.

- (마) “112 (Meilen)” (『전쟁론』 2권, 1833: 354)
- (바) “112 (Meilen)” (①: 515)
- (사) “500 (miles)” (②: 564)
- (아) “一二〇マイルにも達したのである.” (③ 하권: 42)
- (자) “백 20마일까지 달하였다.” (④ 하권: 191)
- (차) “백 20마일까지 달하였다.” (⑥ 하권: 191)¹⁵⁾
- (카) “120마일이나 되었던 것이다.” (⑧: 669)
- (타) “112마일이었다.” (⑨ 2권: 390)

⑤와 ⑦은 초역이라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없다. (마), (바), (사)에서 보듯이, 1833년 판 『전쟁론』 2권, ①, ②에는 마일(Meilen/miles) 표현이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사)의 영어번역은 5를 정확히 곱하지 않았다. 끝을 과감하게 버렸는지도 모른다. 정확히 곱하면 ‘560 (miles)’로 표현했을 것이다. (아), (자), (차), (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④, ⑥, ⑧은 여기에서도 ③을 그대로 따랐다. ④의 하권 191쪽의 ‘백 20마일’, ⑥의 하권 191쪽의 ‘백 20마일’, ⑧의 669쪽에 있는 ‘120마일’은 모두 ③의 하권 42쪽 “一二〇マイル” 그대로다. (타)에서 보듯이, 모든 번역 중에 ⑨만 독어 원전대로 번역했다.

1833년에 간행된 독어 원전 2권 354쪽에는 명확히 ‘112마일’이라고 나오고,

15) ⑥의 문장은 ④와 똑같다. ⑥은 일어번역의 중역이라기보다는 ④를 베낀 것으로 보인다. ⑥은 내용상으로도 ④와 거의 똑같다. 강창구는 ‘완역본 출판에 대하여’에서 (1991 하권: 470) “1970년 초에 상·하권으로 번역된 『전쟁론』을 구입할 때의 기쁨은 책을 읽다가 실망으로 변했다. … (그래서) 『전쟁론』 완역을 다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쟁론』을 번역한 사람이 『전쟁론』 번역서를 읽기 어려워 실망했다는 말을 들으니 무척 ‘솔직하게’ 들린다.

오늘날 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2002년의 Ullstein판 515쪽에도 ‘112마일’이라고 나온다. ‘112마일’이 ⑨를 제외하고 일어번역이나 우리말 번역에서 왜 ‘120마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③의 경우는 오역(誤譯)이라고 생각되며 ④, ⑥, ⑧은 ③의 오역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5. 수량표현 번역의 본질적 차원

원전의 수치와 수량표현을 번역에서 그대로 써야 하는 이유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은 혼란을 막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문제다. 이런 점에서 번역은 문화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¹⁶⁾ 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원전의 수량표현을 그대로 두어 역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극적인 사례를 보도록 한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947년에 동독에서 카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처음 간행되었을 때, 동독의 편집진과 출판사는 1867년에 간행된 『자본론』 1권 초판의 수량표현을 그대로 썼다. 그리고 책의 끝부분에 자세한 환산표를 붙였다. 1962년에 『자본론』 개정판을 출간했을 때 (『자본론』의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환산표는 훨씬 자세해졌다. 그 책 924쪽에는 무게, 길이, 넓이, 부피에 관한 자세한 환산표를 볼 수 있다.¹⁷⁾ 이 논문과 관련되는 길이의 환산표를 『자본론』 924쪽에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

englische Meile(British mile)	=	5280 Fuß	1609.329 m
Yard	=	3 Fuß	91.439 cm
Fuß(foot)	=	12 Zoll	30.480 cm
Zoll(inch)			2.540 cm
Elle(preußisch)			66.690 cm

매우 자세하고 정확한 환산표다.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했고 어느 나라의

16) 번역에서 문화와 문화의 차이를 강조한 글로는 조홍섭(203~227) 참조. 번역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문화도 ‘번역’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김옥동(27) 참조.

17) 여기에는 Karl Marx를 참고한다. 1987년의 『자본론』 1권은 1962년 판과 똑같은 판이다.

단위인지도 밝혔다. 모든 단위를 미터와 센티미터로 정확히 환산했다. 숫자의 자리수와 소수점 단위를 맞춘 편집도 돋보인다.

『자본론』에는 화폐와 관련된 수량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하데, 『자본론』 925쪽에 있는 화폐단위 환산표를 그대로 인용한다.

Pfund Sterling(Pfd.St., pound sterling, £)	=	20 Schilling	20.43 M
Schilling(shilling, sh.)	=	12 Pence	1.02 M
Penny(penny, pence, d.)	=	4 Farthing	8.51 Pf
Farthing(farthing)	=	1/4 Penny	2.12 Pf
Guinee(guinea)	=	21 Schilling	21.45 M
Sovereign(englische Goldmünze)	=	1 Pfund Sterling	20.43 M
Franc(franc, fr.)	=	100 Centimes	80 Pf
Centime(c.)(französische Scheidemünze)			0.80 Pf
Livre(französische Silbermünze)	=	1 Franc	80 Pf
Cent(amerikanische Münze)		ca.	4.20 Pf
Drachme(altgriechische Silbermünze)			
Dukat(Goldmünze in Europa, ursprünglich in Italien)		ca.	9 M
Maravedi(spanische Münze)	=	ca.	6 Pf
Rei(Reis)(portugiesische Münze)		ca.	0.45 Pf

* Die Umrechnung in Mark und Pfennig bezieht sich auf das Jahr 1871
(1 Mark = 1/2790 kg Feingold).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고대希臘의 경화(硬貨 또는鑄貨, Münze, Coin) 등 『자본론』에 나오는 화폐단위에 대한 자세한 환산표를 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표로 된 설명이다. *표에서 마르크와 페니히는 187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때 1마르크는 순금 2790분의 1킬로그램의 가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순금의 무게로 표시되어 있으니, 이 단위를 환산하여 현재 우리의 화폐단위와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18) 2790분의 1 킬로그램은 약 0.3584그램이다. 한 돈의 무게는 3.75그램이다. 한 돈이 1마르크보다 약 10.5배 무겁다. 2010년 현재 한국의 순금 한 돈을 대략 150,000원 이라고 했을 때, 1871년 독일의 1마르크는 오늘 한국에서는 14,286원, 대략 15,000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또 1파운드 스텔링이 20.43마르크였으니, 1파운드는 오늘날 291,863원, 약 300,000원 정도 된다. 그 당시 1파운드 스텔링이 대략 순금 두 돈에 해당하는 가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환산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알다시피 동독은 1990년에 서독에 흡수·통합되었고 통일독일이 생겨났다. 그래서 동독의 화폐이름(마르크, Mark, M으로 약칭)은 사라졌고 서독의 화폐이름(도이체 마르크, Deutsche Mark, DM으로 약칭)이 통일독일의 화폐이름이 되었다. 동독이 마르크를 기준으로 삼아 『자본론』에 나오는 수량표현을 마르크로 ‘번역’했다면, 그 화폐이름이 들어있는 『자본론』은 역사의 유물이 되었을 것이다. 통일이 된 이상, 이제 통일독일의 도이체 마르크로 환산하여 『자본론』을 재출간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했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통일독일의 화폐인 도이체 마르크도 사라지고 말았다! 독일에 유로(Euro, euro)라는 새로운 화폐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유로화는 2002년에 발행되어 2008년부터 통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본론』에 나오는 화폐단위를 ‘유로’로 환산하여 출간해야 하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940년대에 『자본론』을 편집한 동독의 편집자와 출판사들의 원칙과 결정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자본론』에 있는 파운드, 실링, 페니 등의 화폐이름은 『자본론』의 내용과 더불어 그 시대의 문화이자 역사다. 문화와 역사를 드러내는 수량표현은 오늘 우리의 것으로 함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자본론』의 원전과 달리, 우리말 번역의 수량표현은 실망스럽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함께 출간된 마르크스의 『자본』은 『자본론』의 독어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MEW판을 번역했다. 그런데 수량표현은 『자본론』에 쓰인 그대로 쓴 채,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수량표현이나 수량의 환산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¹⁹⁾ 이는 그 시대의 한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새로 번역된 『자본론』에도 수량표현에 대한 언급은 없다.²⁰⁾

김수행이 영어판 『자본론』을 텍스트로 삼아 『자본론』 전3권을 다섯 권으로 옮긴 번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표현을 읽을 수 있다.²¹⁾ “영국의 화폐단

19) 칼 마르크스(1987) 참조.

20) 카를 마르크스(2008) 참조. 『자본론』 원전 1권을 2008년 『자본』은 두 권으로 출판하였고, 1987년 『자본』은 세 권으로 출간하였다. ‘김영민’(『자본론』의 1987년 번역자)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시대에 쓴 강신준(『자본론』의 2008년 번역자)의 필명으로 보인다.

위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으로 고쳤다.”²²⁾ 수치를 환산하지 않은 채 1파운드를 그냥 1원으로, 10파운드를 그냥 10원으로 옮기는 것은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는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김수행이 설명하지 않는다면 독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자본론』에서 ‘파운드’는 무게이름으로도 나오고 화폐이름으로도 나온다. 김수행은 무게이름은 파운드로 쓰고 화폐이름은 원으로 바꾸었다. 금이 곧 화폐인 금본위제도에서 금의 무게이름이 화폐이름이 된 것이다. 파운드의 화폐이름에는 이러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파운드를 원으로 옮기면 파운드에 들어있던 역사도 사라진다. 『자본론』의 파운드는 1800년대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준다. 그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원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본론』에서 우리의 주제인 『전쟁론』으로 돌아오자. 『전쟁론』의 영어번역은 수량표현에서 원전의 텍스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 시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척도와 단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전쟁론』을 영역하여 출간한 1976년에 프로이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프로이센 마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번역은 ‘죽은’ 마일을 ‘살아있는’ 마일로 옮긴 것이다. 이는 ‘산 자’의 횡포다. 자문화 중심주의이자 자문화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⑤와 ⑦은 수량표현에서 영어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는 영어번역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⑥, ⑧은 마일에 대해 해설을 붙였지만, 텍스트 전부 일어번역의 중역이고 일어번역의 오류도 그대로 따랐다. ④, ⑥, ⑧은 ③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논문의 앞에 말한 『전쟁론』 독자의 지적처럼, 마일을 킬로미터로 옮긴 우리말 번역이 없는 것은 『전쟁론』 번역자

21) K. 마르크스(1989~1990) 참조. 김수행은 『자본론』 I권을 1990년에, 『자본론』 II권과 III권은 2004년에 개정했다. K. 마르크스(1990~2004) 참조.

22) K. 마르크스(1989), 『자본론』 I권(상), iv <번역자의 말>. <번역자의 말>은 1989~1990년에 출간된 『자본론』 번역 초판뿐만 아니라 1990~2004년에 이르는 동안 출간된 개정판에서도 볼 수 있다. 처음 『자본론』을 번역하고 15년 후에 개정판을 완간했다. 그런데 개정판 번역에도 수량표현과 관련되는 설명은 <번역자의 말> 외에는 없다.

들이 우리나라 독자를 무시하거나 프로이센의 수량표현을 배려했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론』의 첫 번째 우리말 번역이 일어번역의 중역이었기 때문이며, 나중의 번역은 앞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는 번역에서 글자를 옮기기 전에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 점에서 리콤폴르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역가의 과제란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텍스트로, 문화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번역가는 폭넓은 읽기를 통해 한 문화의 정신에 깊이 침잠하면서 텍스트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끝으로 단어 차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폴 리콤폴르 137).²³⁾

먼저 다른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그 문화의 낱말과 단어 등 ‘글자’부터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 즉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의 접근 방법과 번역 태도는 번역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프로이센 마일을 킬로미터로(다른 나라의 단위를 자기 나라 단위로) 옮기려는(옮겨야 한다는) 생각에는 오늘 이곳을 영원한 것으로 보려는 무의식이 함축되어 있다.²⁴⁾

수량표현에서 바람직한 번역은 ③과 ⑨라고 할 수 있다. 그 시대와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터법으로 환산하는 설명으로 자기 나라 독자를 배려했다. 독일의 번역자들은 “되도록 충실하게,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²⁵⁾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수량표현의 번역은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전의 수량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는 외국의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텍스트를 영어나 일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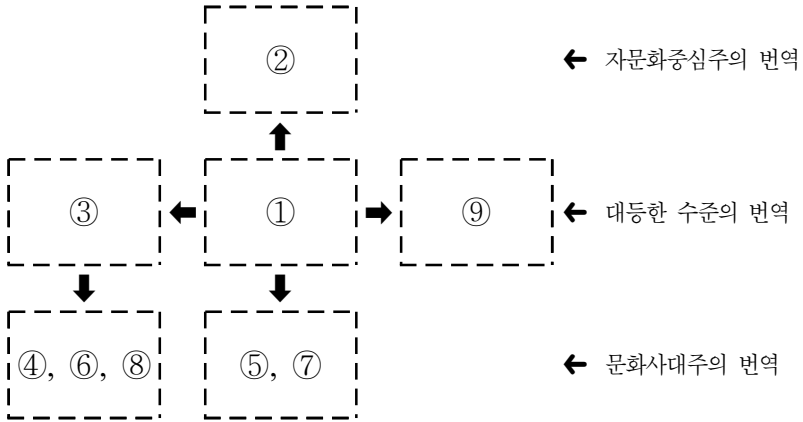
23) 리콤폴르의 말에는 낱말을 옮기는 수준의 번역에 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24)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런 주장은 100년이나 1000년의 수명을 갖는 동서고금의 고전에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면, 베누티(119~186, 특히 156)는 문화의 차이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 차원에서는 도량형 단위와 수량표현 번역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번역 현실이나 번역이론과 관련하여 베누티는 매우 깊은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25) 원문은 “so treu wie möglich, so frei wie nötig”다. 김효중(137) 참조.

하다. 특정한 나라, 시대,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다른 문화에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임무라면, 우리 것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서양인들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태도는 번역의 식민성과 서양중심주의를 초래하고 강화할 것이다.²⁶⁾ 이 역시 우리의 수량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들에게 필요한 환산표를 만들면 될 것이다.

수량표현에서 『전쟁론』 독어 원전의 영어번역, 일어번역, 우리말 번역을 수평번역과 수직번역의 차원에서²⁷⁾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수량표현에서 ③과 ⑨는 ①과 대등한 수준에서 번역했다. 두 번역은 원전의 양옆에 나란히, 즉 수평으로 배치하였다. 두 번역 외에는 원전을 모두 (자문화 중심주의든 문화사대주의든) 불평등하게 번역했다. ②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26) 번역의 식민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학자로는 원영희(99~123) 참조. 번역의 식민성과 번역에 나타나는 식민주의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더글러스 로빈슨 참조. 식민성과 서양 중심주의에 관한 폭넓은 논의로는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된 에드워드 사이드 참조. 번역의 식민 상태에서 ‘식민지 아들’이 ‘제국주의 아버지’를 ‘부친 살해’하면, 오독과 오역은 ‘미학’이 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허명수(199~213) 참조.

27) 수평번역과 수직번역에 관해서는 유명우(229~248) 참조. 수직적 번역관(주종관계)과 수평적 번역관에 대해서는 김지원(9~31) 참조. 문화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불평등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직번역의 문제를 살펴본 논문으로는 전현주(113~130) 참조.

으로 번역하여 원전보다 높은 쪽에 수직으로 두었다. ④, ⑥, ⑧은 ③의 중역이므로, ③ 아래에 수직으로 두었다. ⑤와 ⑦은 ②의 영향을 받아 ② 아래에 (그림에서는 어쩔 수 없이 ① 아래에) 수직으로 배치하였다.

수량표현의 번역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량표현이 문화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간’도 고려하면 수량표현은 역사적인 성격도 갖는다. 번역이 아닐 경우에도 그렇다. 달리 말해, 수량표현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텍스트를 우리의 텍스트로 옮기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텍스트를 오늘의 텍스트로 옮길 때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자[尺], 간[間], 리[里], 정[町], 평[坪], 단보[段步], 정보[町步], 분[分], 돈[錢], 냥[兩], 근[斤], 관[貫], 홉[合], 되[升], 말[斗], 섬[石]’ 등 조상들의 문헌에 나타나는 도량형 단위와 수량표현을²⁸⁾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법으로 옮기면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단위들이 오늘날 잘 쓰이지 않고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미터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상대성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여기의 단위는 왜 절대화하는 것일까? 오늘 ‘박지원’과 ‘정약용’을 읽는데, 그 천재들의 책에 나타나는 ‘미터법’은 얼마나 낯선 것일까? 한마디로 그 시대의 수량표현을 쓰고 오늘날의 단위로 옮겨주는 환산표를 붙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과거를 현재로 ‘데려오지’ 않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과거의 수량표현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즉 우리의 주장과 태도는 다른 나라의 고대(현대)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이 점이 감동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28) 이 외에도 우리말의 수량표현은 매우 풍부하다. 오늘날 쓰이는 수량표현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쓰인 수량표현을 보려면 조용상(24~29 및 40) 참조.

29) 동독에서 간행된 『자본론』의 수량표현은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 80년 전에 (『자본론』 1권 초판은 1867년에 출판되었다. 동독에서는 1947년에 출간되었다. 80년 전이다.) 출간된 독어로 된 『자본론』을 동독에서는 단지 새로 편집하여 다시 출간했을 뿐이다. 외국어로 된 책을 독어로 옮긴 것도 아니다. 독어를 독어로,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를 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도 1867년 판의 수량표현을 그대로 썼다.

요네다가 석굴 조영계획을 찾는 작업은 통일신라 사람들이 측량에 사용했던 자(尺)의 길이를 밝히는 데서 시작하였다. 그는 불국사와 석불사 석굴을 측량하면서 이때의 석공들이 사용했던 자는 곡척(曲尺, 30.3cm)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석탑의 각 부위를 측량하여 0.98곡척, 1.96곡척, 23.6곡척 등의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통일신라의 석공이 쓴 자는 0.98곡척(29.7cm)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길이를 당척(唐尺)이라 이름 붙였다. 그는 놀랍게도 불국사의 조영척(造營尺)은 0.980125곡척이었고, 석불사 석굴의 조영척은 0.98207이었는데 이것의 평균치로 0.98이라는 치수를 얻어냈다. 그 숫자의 치밀함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다. 그리고 그는 측량의 정확성을 위하여 통일신라 석공이 사용했을 자와 똑같은 자를 쇠자로 만들고 그것으로 측량했다(유홍준 195).

오늘 이곳의 측량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석굴을 바라보려고 했다면, 석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고대의 측량단위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석굴의 아름다움이 갖는 수학적인 비율의 비밀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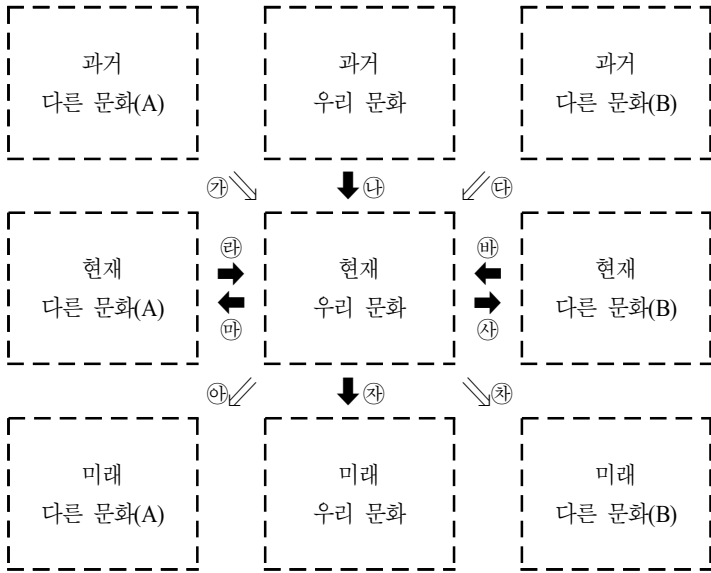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 아니라 100년 후나 1000년 후를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여전히 공자, 맹자를 읽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는다. 그런데 오늘의 책이 100년이나 1000년 후에도 읽힐 것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인생은 짧고, 인간은 대개 자신의 일생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제인 『전쟁론』을 예를 들어 말하자. 1832년의 프로이센 마일을 2000년경에 영미식 마일로 환산했는데, 2200년에 영국과 미국에 마일이 사라지고 미터법이 쓰인다면 영미식 마일로 환산된 번역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400년에는 미터법도 새 도량형 단위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2600년에는 영국이나 미국이 멸망하고 새 단위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론』을 읽는 것은 1800년대의 유럽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다. 박지원과 정약용을 읽는 것도 조선 후기와 그 시대의 문화, 즉 그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글(한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30) 석굴 측량과 관련된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의 놀라운 장인정신, 유홍준이 요네다에게 보내는 경외감, 석굴에 대한 찬탄 등은 유홍준(183~210) 참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것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 옮기면 그 여행은 ‘죽은’ 여행이 될 것이다.

어제와 오늘의 우리(다른) 문화와 역사 이해의 관점에서, 수량표현의 번역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 것은 ㉠와 ㉡일지 모른다. 그래야 다른 문화나 다른 시대와 교류하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6. 맺음말

번역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되도록 적확(的確)하게 옮기는 일은 텍스트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번역이 텍스트의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이 어제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의 고전을 번역할 때는 특히 그러하다. 이는 1000년 전의 우리 문화를 오늘 이해하려 할 때도 해당된다.

현상의 차원에서 보면 수량표현을 전달하는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전쟁론』과 같은 고전을 번역할 때는 원전의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 도량형 단위와 수량표현의 번역에는 그 표현을 음차하여 적고 수치도 그대로 쓴 다음에 해설을 달아주는 것이 적절한 번역 방법이 될 것이다.

『자본론』의 출간, 동독과 마르크의 몰락, 동서독의 통일, 유로의 등장과 도이체 마르크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수량표현의 단순한 ‘혼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즉 100년이나 1000년 전의 수량표현이 오늘날 사라졌다면, 오늘 우리의 수량표현도 100년이나 1000년 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그것이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이다. 번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일이다. 그렇다면 고전의 수량표현을 오늘 이곳의 수량표현으로 함부로 옮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곳을 절대화하고 영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국 『전쟁론』 번역에서 프로이센 마일을 영미식 마일이나 킬로미터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수량표현의 번역 방법은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것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데도 요구된다. 미래를 오늘 알 수 있다고 (미래에도 미터법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미래는 미래에게 맡기는 (미래에는 미래의 수량표현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언어와 표현방식은 그만큼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땅의 영어공용화 논쟁은 일종의 ‘폭력’이다.³²⁾ 그 논쟁을 영어로 하지 않는 것은 ‘코미디’다. 공용화를 주장하지 않아도 공용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공용화는 이루어질 것이다.³³⁾ 그렇지만 한글이 사라지면 번역을 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결국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도 줄어들 것이다.³⁴⁾

32) 논쟁이 폭력이 될 때도 있지만, 개념이 폭력이 될 때도 있다. 개념 중에 오늘을 영원으로 보고 절대화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개념이 폭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개념은 극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극히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시장이 있는 경제는 시장경제이고 시장이 없는 경제는 계획경제다.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경쟁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는 시장경제다. 그러면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경제도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노예라는 ‘말하는 상품’이 거래되는 경제는 시장경제에 속한다. 노예에 대한 착취와 노예의 죽음 등은 노예의 일이며 주인과는 무관하다. 시장경제 개념과 달리 ‘자본주의’라는 좀더 정확한 개념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모순과 대립,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담고 있다. 노예제를 예로 들면 시장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경제체제를 분석한다. 흑인은 흑인이지만, 주인과 맺는 관계에서만 노예로 전락한다. 그 관계 밖에서는 ‘마이클 조던’이나 ‘마이클 잭슨’이다. 자본주의 개념은 인간의 경제체제를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역사를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제사회라는 사회변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오늘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영원했고 영원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인간이 물물교환을 한 이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시장이 존재했고 존재한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도 시장은 존재한다 (석유시장, 인터넷 쇼핑몰). 따라서 시장경제의 개념으로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경제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그 개념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경제 시스템이 영원했고 영원할 것이라는 함축을 담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은폐한다. 사회의 변동과 역사의 진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개념은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몰역사적인 개념이 되었다.

33) “영어공용화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그리하여 결국 한글이 사라지는 상황이 닥치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 상류층과 주류 사이에 암암리에 합의된 어떤 의도들이 관철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박상익 225). 박상익의 의심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이 땅의 영어 범람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심각성과 달리, 박상익의 글은 우리의 번역문화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유쾌한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

34) 언어의 종말이 문화의 종말을 동반한다고 경고하는 앤드류 달비(379) 참조.

참고문헌

- [『전쟁론』 텍스트] - 우리말 번역은 발행연도순으로 정리한다.
- 클라우제비츠, 권영길 옮김 (1972) 『전쟁론』, 하서출판사.
- _____, 이종학 옮김 (1972) 『전쟁론』, 대양서적.
- _____, 이종학 옮김 (1974) 『전쟁론』, 일조각.
- _____, 김홍철 옮김 (1977) 『전쟁론』, 삼성출판사.
- _____, 허문열 옮김 (1977) 『전쟁론』, 동서문화사.
- _____, 권영길 옮김 (1982) 『전쟁론』, 양우당.
- _____, 허문열 옮김 (1982) 『전쟁론』, 범한출판사.
- _____, 허문열 옮김 (1983) 『전쟁론』, 학원출판공사.
- _____, 맹은빈 옮김 (1990) 『전쟁론』, 일신서적.
- _____, 강창구 옮김 (1991) 『전쟁론』, 병학사.
- _____, 옮긴이 없음 (1993) 『전쟁론』, 합동참모본부.
- _____, 류제승 옮김 (1998) 『전쟁론』, 책세상.
- _____, 정토웅 옮김 (2008) 『전쟁론』, 지만지.
- _____, 허문순 옮김 (2009) 『전쟁론』, 동서문화사.
- _____, 김만수 옮김 (2006~2009) 『전쟁론』, 갈무리.
- _____, (1832~1834) *Vom Kriege*, Ferdinand Dümmler.
- _____, (2002) *Vom Kriege-hinterlassenes Werk; ungekürzter Text*, Ullstein.
- _____, (1993) *On War*, translated by M. Howard/P. Paret. Alfred Knopf.
- _____, 篠田英雄 譯 (1968) 『戰爭論』, 岩波書店.

[일반 문헌]

- 김영환 (2006) 「번역 문화의 전통과 번역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번역학 연구』 7(1): 7-24.
- 김옥동 (2007) 『번역인가 반역인가』, 문학수첩.
- 김정우 (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번역학 연구』 9(2): 67-93.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창간호.

9-31.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사.
- 달비, 오영나 옮김 (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 로빈슨, 정혜욱 옮김 (2002) 『번역과 제국-포스트식민주의 이론 해설』, 동문선.
- 르드레르,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해석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리콴르, 윤성우 · 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 마르크스, 김영민 옮김 (1987) 『자본』, I-1, I-2, I-3, 이론과실천.
- _____, 강신준 옮김 (2008) 『자본』, I-1, I-2, 길.
- _____, 김수행 옮김 (1989~1990) 『자본론』, I권(상), I권(하), II권, III권(상), III권(하), 비봉출판사.
- _____, 김수행 옮김 (1990~2004) 『자본론』, I권(상), I권(하), II권, III권(상), III권(하), 비봉출판사.
- 박상익 (2006) 『번역은 반역인가』, 푸른역사.
- 베누티, 임호경 옮김 (2006)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 사이드, 박홍규 옮김 (2009)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안정효 (2006)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세경.
- 원영희 (2002)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식민주의적 기능-영한번역에 나타나는 ‘그’ 사용」, 『번역학연구』 3(1): 99-123.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창간호: 229-248.
- 유홍준 (1994)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권, 창작과비평사.
- 이근희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이희재 (2009) 『번역의 탄생』, 한예원.
- 전현주 (2008) 「번역의 불평등성과 해소방안」, 『번역학연구』 9(3): 113-130.
- 조용상 (1997) 『중세 국어의 수량 표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홍섭 (2000) 「영역의 사례 연구-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오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창간호: 203-227.
- 지명숙 · 월라벤 (2003) 『보물섬은 어디에-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진실로 · 곽은주 (2009) 「언어사용역을 고려한 영한 수량표현 번역」, 『번역학연구』 10(1): 171-197.

콜러, 박용삼 옮김 (199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교 출판부.

허명수 (2006) 「오독과 오역의 미학」, 『번역학연구』 7(1): 199-213.

Marx, Karl (1987)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Band 23. Dietz Verlag.

<http://de.wikipedia.org/wiki/Meile>.

[Abstract]

Numeral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of Culture
— in the Translations of Clausewitz's *On War* —

Kim, Man-su

(Daejeon University,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Research fellow)

In the translations of the classics like *On War*, written by Prussian general Carl von Clausewitz, it would be desirable, to transcribe the numeral expressions of the source text(ST) in target text(TT), and to write the numerical value of the ST intactly as it is to TT. It would be enough, to put a conversion table and a brief commentary at the end of the TT. For example, the Prussian one *Meile*(mile) is 7532.484 meters, or the Anglo-Saxon one mile approximately 1609.3 meters. But this meaning was not followed through not only in the English translation of *On War*, but also in most of Korean translations. If man ‘translates’ the numeral expressions of the ‘source culture’ into those of the ‘target culture’, for instance, the Prussian *Meile* into the Korean Kilometer, the numerical value of *Meile* is changed (must be changed), and the *Quadratmeile*(square mile) even goes wrong or becomes complicated. To avoid this confusion, the numeral expressions of the ST must be respected. And this mind would be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another culture, but also other times and histories.

▶ Key Words: Clausewitz, *On War*, Numeral Expression, Understanding of Culture

김만수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mansasuwol@hanmail.net

관심분야: 『전쟁론』, 서양고전 번역, 사회과학 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09일